

#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이진숙\*\* · 한지현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전공 교수 · 전북대학교 아동·주거학전공 시간강사

Lee Jin Suk · Han Ji Hyoe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studies & housing Environment

### Abstract

The purpose of curr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80 primary school 4th, 5th, 6th graders(45 boys, 35 girls) and 55 middle school 1th, 2th graders(42 boys, 13 girls) who were institutionalized in jeonju.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ased on gender, grade, and period in institution. 2)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problem behavior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s based on gender and period in institution. 3) In regression analysis models, active or passive coping strategies were negatively or positively related to internalized behavior problems respectively. Furthermore period in institution was positively related to externalized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institutionalized children, stress coping behaviors, behavior problems

### I. 서론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그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두드러지지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행동문제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부적응 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로 알려지고 있다(Kupersmidt & Coie, 1990; Loeber, 1982;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아동기 행동문제는 다른 어떤 발달 단계의 문제보다도 더욱 관심이 모아져야 할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행동문제는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의 일상 행동이 발생빈도나 표출정도에 있어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한지현 · 유안진, 1996).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아동의 개인내적 특성, 가족관계 및 가족외적 환경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는 불안정한 애착의 부모 관계나 적절하지 못한 부모의 양육행동 등 주양육자로부터의 정서적이고 양육적인 지지관계 결핍 또는 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리은 · 정옥분, 1996; 한지현 · 유안진, 1996; Harold & Conger, 1997). 이를 고려해볼 때, 시설에 입소하여 집단 생활을 함으로써 부모나 보육사 등 주양육자로부터 충분히 정서적 또는 애정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쉬운 시설보호 아동들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문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설보호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에 대한 일부 연구들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성미영 외, 2001; 이순형 외, 2000), 위축이나 불안, 공격성과 같은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를 보다 자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성미영, 2006; 석주영 외, 2004; 이강이 외, 2002). 특히 시설보호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

\* 본 연구는 2005년 전북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Corresponding author: Lee, Jin Suk  
Tel: 063) 270-3836, Fax: 063) 270-3839  
E-mail: jslee0820@chonbuk.ac.kr

는 대부분이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 우울, 대인관계 문제의 위험요인이 되므로(Leathers, 2000) 가정을 대신하여 시설보호 환경 내에서 양육되는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보다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의 시설보호가 단순한 수용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진인적 인격의 발달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행동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생활사건이기 때문에 아동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특히 취약 이후에는 가정 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전보다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트레스가 인간이 출생과 더불어 전 생애에 걸쳐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볼 때 스트레스를 완전히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적게 받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개인에게 의문을 제기하면서(Compas, Malcarne, & Fondacaro, 1988),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대처하는가와 관계된 대처행동에 의해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력이 중재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Band & Weisz, 1988). 즉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어떠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에 기능적인지 또는 행동문제와 관련이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심리·정서적인 부적응을 보이게 된다는 의미이다. 부모의 적절한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일상적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전략은 시설보호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유아의 대인관계 문제해결전략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강제적 전략의 비율이 일반유아에 비해 시설유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이강이·성미영, 2003)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적절한 대처능력의 부재에 따른 적응상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대한 연

구들(박진아, 2001; 송민정, 2004; 양현아·박영애, 2004; 정연우, 2001; 한미현·유안진, 1996; 허경애, 2003; 현은강·이현정, 1999)이 진행되어왔으나 이들 연구들은 모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시설보호 아동의 적응 및 행동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들(성미영 외, 2001; 이순형 외, 2000; 이강이 외, 2002; 이강이 외, 2002; 성미영, 2006)이 일부 이루어졌을 뿐,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개인의 건강한 사회적 적응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특히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보호 아동에 있어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건강한 적응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보호 아동들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를 살펴보고 이들 변인들간에 관계를 밝힘으로써 시설보호아동의 개인내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한편,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는 성별과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성차와 연령차가 나타났는데, 남아와 여아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이정미, 1996; 진은경, 1990), 연령에 따른 차이도 그 결과가 다양하게 보고되었다(김금숙, 2001; 김민기, 2000; 윤유경, 1990; 정원주, 1997; Folkman & Lazarus, 1984).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의 경우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 과잉활동성 등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여아보다 남아가 높으며 불안, 우울, 위축 등의 내면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권영옥·이정덕, 1999; 이경주·신효식, 1998; 이현정, 1997; Achenbach & Edelbrock, 1983),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양혜영, 이해련, 1996; Achenbach, 1991)보고 되었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와 연령차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다. 따라서 시설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는 시설입소기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문적 자아개념(장희순·이영, 1990)이나 귀인성향(김영숙, 1993)이 시설 입소기간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입소기간이 긴 아동이 짧은 아동에 비해 학문적 자아개념이 낮으며 실패

의 원인을 과제 곤란도로 더 많이 귀인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이는 시설 입소기간이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의 행동문제에 관련된 성별, 연령, 시설 입소기간 및 스트레스대처행동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시설보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제반 행동문제에 대한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유용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는 어떠한가?
  - 1)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아동의 성별, 학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 학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아동의 성별, 학년, 입소기간,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복지 육아시설에서 보호받는 초등학생 고학년생(4-6학년)과 중학생(1-2학년), 그리고 그들의 보육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9세부터 13세까지로 선정한 이유는 시설보호를 받는 후기 아동기의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중학교 1, 2학년생의 경우 아동기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시기 아동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이다. 전주시와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복지 육아시설 5곳을 선정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37명과 보육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부실 자료 2부를 삭제하고 총 135부(남아 87명, 여아 48명)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입소연령, 입소기간 및 입소사유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조사 대상 아동의 평균 입소연령은 7세 9개월, 입소기간은 4.3년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남	87 (64.4)	
	여	48 (35.6)	
학년	초등학교	4학년	27 (20.0)
		5학년	20 (14.8)
		6학년	33 (24.4)
	중학교	1학년	37 (27.4)
		2학년	18 (13.3)
입소연령 (평균 7세 9개월)	만5세 이전	21 (15.6)	
	6-9세 미만	48 (35.6)	
	9-12세 미만	37 (27.4)	
	12세 이상	12 (8.9)	
	무응답	17 (12.6)	
입소기간 (평균 4.3년)	2년 미만	28 (20.7)	
	2-4년 미만	25 (18.5)	
	4-6년 미만	34 (25.2)	
	6년 이상	35 (25.9)	
	무응답	13 (9.6)	
입소사유 (중복응답)	가정문제	부 또는 모의 사망	14 (6.6)
		부모의 이혼	62 (29.4)
		부모의 가출	26 (12.3)
		부모의 질병/장애	13 (6.2)
		부모의 방임, 학대	28 (13.3)
	경제적문제	빈곤/부모의실업/파산	43 (20.3)
	아동의 문제	가출/장기결석/학교중퇴	6 (2.9)
기타		19 (9.0)	

## 2. 연구도구

### 1)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민하영(1999)이 수정한 29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적극적 대처행동 6문항, 소극적 대처행동 6문항, 공격적 대처행동 6문항, 회피적 대처행동 6문항,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하영(1999)은 4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인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을 평가하였다. 대처행동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아동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8이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2~.88 사이에 있었다.

### 2) 아동의 행동 문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은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국내에서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행동평가 척도(K-CBCL;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사회능력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 총 117문항 중 내면화 행동 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만을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내면화 행동문제 32문항과 비행, 공격성의 외현화 행동문제 33문항이다. 이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자주 그렇다(2점)'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사가 아동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능한 원점수의 범위는 0~130점이며, K-CBCL의 모든 하위척도들의 원점수는 표준화된 T점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원점수 대신 표준점수인 T점수를 사용한 이

유는, 응답자들의 원점수가 규준집단의 점수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75가 나왔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9~.89사이에 있었다.

## 3. 연구절차 및 통계분석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문제행동 척도에 대한 예비조사는 2005년 12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각 5명과 보육사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용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조사는 2006년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5곳의 보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과 보육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 보육사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 배포 후 1주일 뒤 연구원이 보육원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에 따라 t-test, 상관분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스트레스 대처행동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성별, 학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t검정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소극적 대처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t=-2.15$ ,

<표 2>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남 (n=87)	여 (n=48)	t 값
	M(SD)	M(SD)	
적극적 대처행동	2.53(.62)	2.46(.48)	.63
소극적 대처행동	2.30(.58)	2.54(.66)	-2.15*
공격적 대처행동	2.33(.64)	2.29(.69)	.31
회피적 대처행동	2.27(.38)	2.31(.47)	-.47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2.41(.66)	2.32(.66)	.79

\*  $p<.05$

p<.05), 여아가 남아에 비해 소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울음으로 표현하거나 기적이나 신의 힘을 빌어 문제해결을 소망하는 등의 대처방식을 보일 수 있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학년구분은 초등 고학년생과 중등 1, 2학년생으로 나누어 초등학교생과 중학생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3>에 나타난바와 같이, 학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생에 비해 중학생이 적극적 대처행동(t=-2.86, p<.01), 공격적 대처행동(t=-1.98, p<.0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t=-2.91, p<.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생에 비해 중학생이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대처나 주변사람의 도움을 얻어 문제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때로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한편, 시설 아동의 입소기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입소기간을 연속변

수로 하여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3, p<.05).

## 2. 행동문제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도 성별, 학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위축행동이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2.15, p<.05).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기간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행동문제 중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r=.26, p<.01) 외현화 행동문제 전체와 관련이 나타났다(r=.25, p<.01). 즉, 입소기간이 길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초등4-6학년(n=80)	중1-2학년(n=55)	t 값
	M(SD)	M(SD)	
적극적 대처행동	2.39(.57)	2.67(.54)	-2.86**
소극적 대처행동	2.34(.64)	2.45(.59)	-1.02
공격적 대처행동	2.23(.58)	2.45(.74)	-1.98*
회피적 대처행동	2.24(.44)	2.35(.37)	-1.47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	2.25(.62)	2.57(.67)	-2.91**

\* p<.05 \*\* p<.01

<표 4> 입소기간과 스트레스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

입소기간	적극적	소극적	공격적	회피적	사회지지 추구적
입소기간	.03	.06	.09	.13	.23*

\* p<.05

<표 5> 성별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남 (n=87)	여 (n=48)	t 값
		M(SD)	M(SD)	
내면화 문제	위축	53.69(6.07)	57.71(15.36)	-2.15*
	신체증상	50.56(3.20)	50.46 (1.63)	.21
	우울	51.59(3.50)	51.06 (2.99)	.87
	전체	51.43(3.58)	51.21 (3.18)	-.58
외현화 문제	비행	53.18(5.06)	53.71 (4.90)	-.42
	공격성	52.89(4.91)	53.27 (5.38)	.35
	전체	52.76(4.74)	52.69 (4.69)	.08

\* p<.05

〈표 6〉 입소기간과 행동문제간의 상관관계

	내면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위축	신체증상	우울	전체	비행	공격성	전체
입소기간	-.05	.07	.09	.06	.08	.26**	.25**

\*\* p<.01

3.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아동의 성별, 학년, 입소기간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하위요인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는데, 공차한계가 .6에서 .8까지 범위를 이루고 VIF가 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1단계에서는 성별, 학년, 입소기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종속변인인 행동문제는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입소기간의 영향이 통제되었을때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대처행동( $\beta = -.21, p < .05$ )과 소극적 대처행동( $\beta = .37, p < .001$ )이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그 설명력은 15.6%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행동을 적게 사용하고 소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내면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1단계에서 입소기간( $\beta = .28, p < .01$ )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는 없었지만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하여 4.5%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적 대처행동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변인이었으며, 이는 입소기간과 같은 환경적 요인은 물론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성별, 학년,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소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결과(박진아, 2001; Endler & Parker, 1990; Windle & Windle, 1996)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서적 대처

〈표 7〉 성별, 학년, 입소기간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행동문제

	내면화 행동문제				외현화 행동문제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별	.01	.06	.08	.96	-.03	-.33	-.02	-.28	
학년	.03	.38	.01	.13	.14	1.56	.11	1.25	
입소기간	.06	.71	.05	.62	.28	3.20**	.28	3.12**	
대처 행동	적극적			-.21	-2.15*			-.10	-1.08
	소극적			.37	3.75***			.07	.78
	공격적			-.10	-1.07			.04	.49
	회피적			.09	1.02			-.17	-1.79
	사회지지추구적			-.11	-1.16			.05	.50
전체 R <sup>2</sup>	.005		.161		.089		.134		
$\Delta$ R <sup>2</sup>			.156				.045		
F	.200		2.718**		3.84*		2.18*		

\* p<.05 \*\* p<.01 \*\*\* p<.001 / 성별은 가변수 처리함.

를 많이 사용하고 남아는 문제중심적인 대처와 행동적인 대처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진은경, 1990; 정원주, 1997)는 본 연구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과는 남아에게는 활동적이고 문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하는 반면에 여아에게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서적으로 더 예민한 여아에게(Brody, 1995)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절하거나 문제를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 대처행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강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한다거나(정영숙·정승희, 1996)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Casado, 2000; 윤유경, 1990) 등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년에 따라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적극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인 대처행동이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비해 중학생이 스트레스 대처를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더 다양한 유형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보이고(김금숙, 2001) 적극적 문제해결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정원주, 1997)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지능력이 성숙해짐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더 많이 습득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적극적 문제해결보다는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김민기, 2000; 박진아, 2001; 이정미, 1996)도 있으므로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학년차가 시설보호 아동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성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일반 아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스트레스대처행동은 입소기간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입소기간이 길수록 사회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 아동들이 대체로 가정환경문제로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이 길수록 입소전 가정의 경제적 압박이나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Duncan & Brooks-Gunn, 2000)이 약화되고 시설 내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공받는 일을 경험하면서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는 아동의 성별과 입소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위축

행동에서만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위축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결과는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한미현·유안진, 1996; 현은강·이현정, 1999; 홍순덕, 1999). 이는 문제행동을 표출하는데 있어서 성차가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는 문제상황에 보다 소극적이며 회피적으로 대처하도록 기대되기 때문에 위축행동이 더 많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입소기간에 따른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입소기간이 길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보호가 필요하긴 하지만 입소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실제 미국이나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1960년대부터 장기 시설보호가 아동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Bowlby, 1951; Goffman, 1960)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탈시설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장기간의 시설보호보다는 단기보호나 입양을 선호하게 되었다(Kadushin & Martin, 1983 재인용).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시설입소라는 사회적 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아동복지정책이 가정보호중심으로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설보호 아동의 행동문제는 내면화 행동문제의 경우 적극적 대처행동은 부적 예측변수이며 소극적 대처행동은 정적 예측변수로 밝혀졌고,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입소기간이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해 방어적으로 대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할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다는 현은강, 이현정(1999)의 연구와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고 부정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보일수록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는 연구들(박진아, 2001; 송민정, 2004; 양현아·박영애, 2004; 정연우, 2001; 허경애, 2003)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내면화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울음이나 글로 표현하거나 신의 힘이나 가족의 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등의 수동적인 대처방식을 취하는 소극적 대처행동을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극적 대처행동을 사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결국에는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면적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보육사나 교사는 아동에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기능적인 방법을 찾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시설보

호아동의 경우 행동문제 등 적응상의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같은 아동의 내적인 힘을 기르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사의 적절한 지도와 개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보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이들 아동을 위한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외현화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변수로서 입소기간이 유의하게 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보호가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정보호 중심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시설이 가정의 기능을 잘 대체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와 시설종사자들의 적극적이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에 대한 자료를 보육사와 아동보고에만 의존한 결과 심도있게 접근하지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종단연구를 통해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입소기간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지만, 시설환경 변인으로 입소기간만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유형, 시설규모, 보육사 대 아동비율, 입소사유, 보육사의 질 등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인적 환경을 고려함으로써 시설 아동의 특성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성별, 연령, 입소기간과 스트레스대처행동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이들 변인들에 대한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시설보호 아동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시설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주제어 : 시설보호아동, 스트레스 대처행동, 행동문제

## 참 고 문 헌

- 권영옥, 이정덕 (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2), 299-317.
- 김금숙 (200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리은, 정옥분 (1996) 부모의 언어통계유형과 아동의 부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4(5), 265-279.
- 김민기 (2000) 학년과 성별에 따른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 정도와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차이.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1993) 시설 아동의 자아개념 및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 (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하영, 유안진 (1998)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6(7), 83-96.
- 박진아 (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성미영, 이순형, 이강이 (2001)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초기 학교적응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9(1), 53-64.
- 송민정 (2004)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아, 박영애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847-860.
- 양혜영, 이혜련 (1996) 소아정신과에 의뢰된 아동의 주문제에 대한 분석: 발달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9(2), 106-121.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 윤유경 (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이, 성미영 (2003). 유아의 정서 지식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 유아의 비교-. 아동학회지, 24(1), 33-45.
-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0(2), 57-66.
- 이경주, 신효식 (1998)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사회적 지원 및 지지유형 수준에 따른 부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5-26.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0)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39(11), 181-191.
- 이정미 (1996) 초등학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와 그 대처방



- 법유형.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정 (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순, 이영 (1990) 시설아동의 학문적 자아개념과 귀인성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1(1), 100-114.
- 정연우 (2001)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정승희 (1996) 일부지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위 측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9(2), 185-195.
- 정원주 (1997) 아동기 스트레스원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그 증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은경 (1990) 스트레스 상황에 따른 아동의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허경애 (2003)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 이현정 (1999)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사회적 적응 및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7(11), 167-178.
- Achenbach, T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M, Edelbrock, C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nd, EB, Weisz, J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 on coping with everybod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247-253.
- Brody, LR (1995) Gender difference in emotional development: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53, 102-149.
- Casado, M (2000) Coping strategies and gender differences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exposed to risk factors.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Compas, BE, Malcarne, VL, Fondacaro, K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o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05-411.
- Duncan, GJ,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188-196.
- Endler, NS, Parker, JD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44-854.
- Folkman, S, Lazarus, R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Harold, GT, Conger, R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333-350.
- Kadushin, A, Martin, J (1983) *Child Welfare Services*. N.Y: Macmillan: London: Collier Macmillan.
- Kupersmidt, JB, Coie, J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eathers, SJ (2000) Behavioral Disturbance Among Foster Children: The role of Detachment From Caregivers and Community Institu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Doctoral Dissertation.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Parker, JG, Asher, S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Windle, M, Windle, RC (1996) Coping strategies, drinking motives,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middle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nd with academic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551-560.

(2006. 08. 30 접수; 2006. 12. 10 채택)